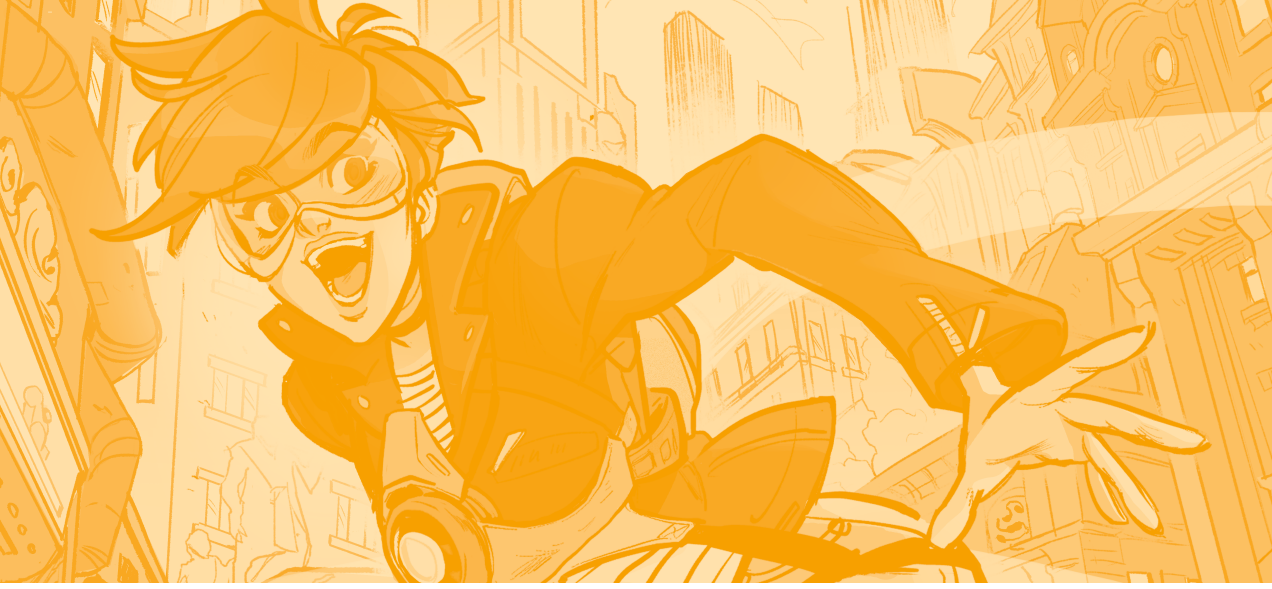
DARK HORSE COMICS
BLIZZARD ENTERTAINMENT
#2/5
OVERWATCH®
트레이서 - 런던의 부름
MARIKO TAMAKI
BABS TARR



트레이서 — 런던의 부름

#2/5

OVERWATCH

오버워치 해체 후 수년이 흐르고, 세상에는 불의가 횡행하며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지각력과 지능을 갖춘 옴닉이라는 로봇들은 옴닉 사태 후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차별의 종식과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웅은 흔히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나죠.

전 오버워치 요원 트레이서는 음악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는 옴닉인 이기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기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런던 옴닉 대부분이 고군분투하며 거주하는 지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이기의 집을 방문한 후, 트레이서는 지하 세계 전력의 원천인 그리드의 수리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녀는 인간을 믿지 않는 케이스와 그의 부하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 *MARIKO TAMAKI* 그림 *BABS TARR* 그림 어시스턴트 *HEATHER DANFORTH*
레이아웃 *HUNTER CLARK* 채색 *RACHAEL COHEN* 영문 식자 *DERON BENNETT*
한글 식자 *SOPHIA HONG* 표지 *BENGAL*

다크 호스 코믹스

대표 및 발행인 *MIKE RICHARDSON* 선임 편집자 *PHILIP R. SIMON*
디자이너 *PATRICK SATTERFIELD* 디지털 아트 테크니션 *ALLYSON HALLER*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편집 팀

수석 편집자 *CHLOE FRABONI, PAUL MORRISSEY* 프로듀서 *FELICE HUANG, BRIANNE MESSINA, DEREK ROSENBERG*
소비자 제품 디렉터 *BYRON PARNELL* 북 아트 & 디자인 매니저 *BETSY PETERSCHMIDT*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KAPLAN, MICHAEL CHU, JEFF CHAMBERLAIN, ARNOLD TSANG, GEORGE KRSTIC, ALYSSA WONG, SEAN COPELAND, MADI BUCKINGHAM*

BLIZZARD ENTERTAINMENT Blizzard.com

도움 주신 분 *DAVID SEEHOLZER*

DarkHorse.com Facebook.com/DarkHorseComics Twitter.com/DarkHorseC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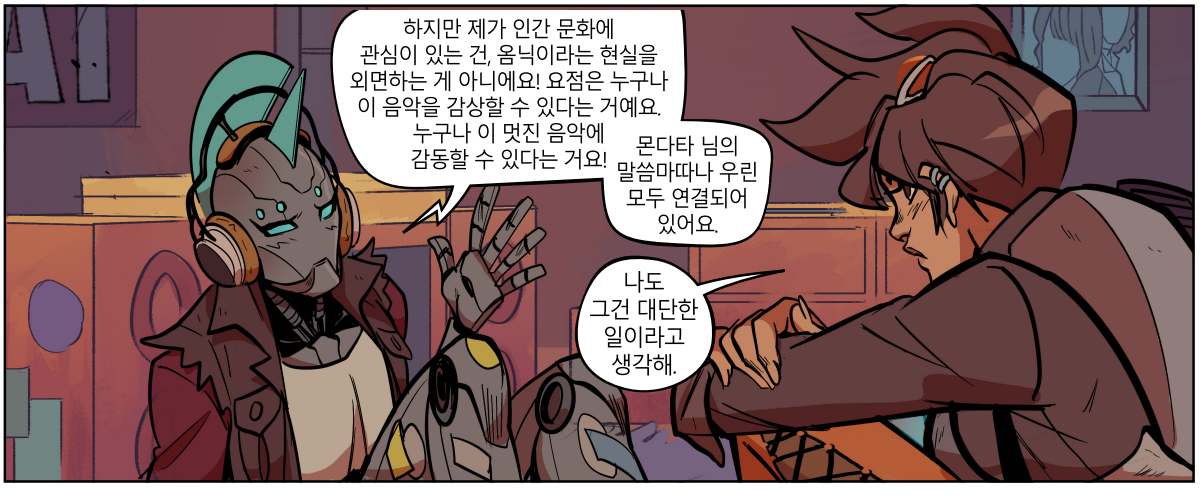
OVERWATCH® © 2020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이고 Blizzard Entertainment는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Dark Horse Comics®와 Dark Horse 로고는 여러 카테고리와 국가에서 등록된 Dark Horse Comics LLC의 상표입니다. 모든 권리는 Dark Horse Comics LLC에 있습니다. Dark Horse Comics LLC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본 발행물의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본 발행물에 등장하는 이름, 인물, 장소 및 사건은 저자의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허구로서 사용됩니다. 풍자의 의도가 없는 실존 인물(생존 여부와 무관), 사건, 기관, 장소와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난 어릴 때,
매사에 2분씩 늦곤 했다.
(아마 밤새 밖에서
노느라 그랬겠지.)
난 모기!
물론 시간
가속기가 없던
시절 얘기다.
열일곱 살이 됐을 때
처음 오토바이가 생겼다.
나는 늦었어도, 빨랐다.
그리고 난 더욱
빨라지고 싶었다.
실험 비행 파일럿으로
왕립공군에 입대했을 때,
마침내 나는 올바른
때에 올바른 곳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는 길을 잃었다.
시간을 벗어났다.

윈스턴, 그리고 오버워치 덕분에, 이제 대충 시간이 내 손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게 됐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이! 차를 보고 다녀야지!
미안해요!
희한하게도,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항상...

...타이밍이 좋은 건 또 아니다.
안 그래도 인간 문화에 집착한다 싶더니, 이제 인간들을 여기까지 데려온단 말이냐?! 이건 모욕이다. 우리의 터전과 성스러운--
짜잔!
어어, 음.
레나. 이쪽은 케이스 님이에요. 케이스 님, 이쪽은-
나는 지하 세계에 온 인간에게 인사할 생각 없다.
경고하마. 인간들이란 존재는 명예를 모른다. 말의 무게라는 것을 모르지.
흐음.
창피하네요.
너도 두고 보거라.
나 때문에 곤란해진 거 아냐?
케이스 말은 개의치 마요. 그분의 방식과 신념은-
팝 앨범 가져왔네요?!

그게..케이스 있잖아.
인간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일부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옴닉들이 있어요.
RAMONES
EQUAL
GABBA GABBA HEY!
NEAT


하지만 제가 인간 문화에 관심이 있는 건, 옴닉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요점은 누구나 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멋진 음악에 감동할 수 있다는 거요!
몬다타 님의 말씀마따나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나도 그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아직 그리드 부품이 필요하지? 내가 몇 가지 부품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
고마워요.

별것도 아닌데, 뭐.
솔직히 별것은 맞았다.

옴닉들의 그리드 부품을 찾느라 여섯 시간이나 걸렸어. 모두 정부의 규제를 받는 물건이었지.
정말 말도 안 되지. 7년 전만 해도 인간과 옴닉이 힘을 합쳐 삶의 터전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요즘은 무슨 기사를 읽어도 옴닉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선전물 같다니까.

옴닉이 가방 하나만 훔쳐도 또 무슨 사태라며 난리고 말이야.
물론 이런 말을 하면서도...네가 오버워치에 있을 때 겪은 일을 생각하면 겁이 나긴 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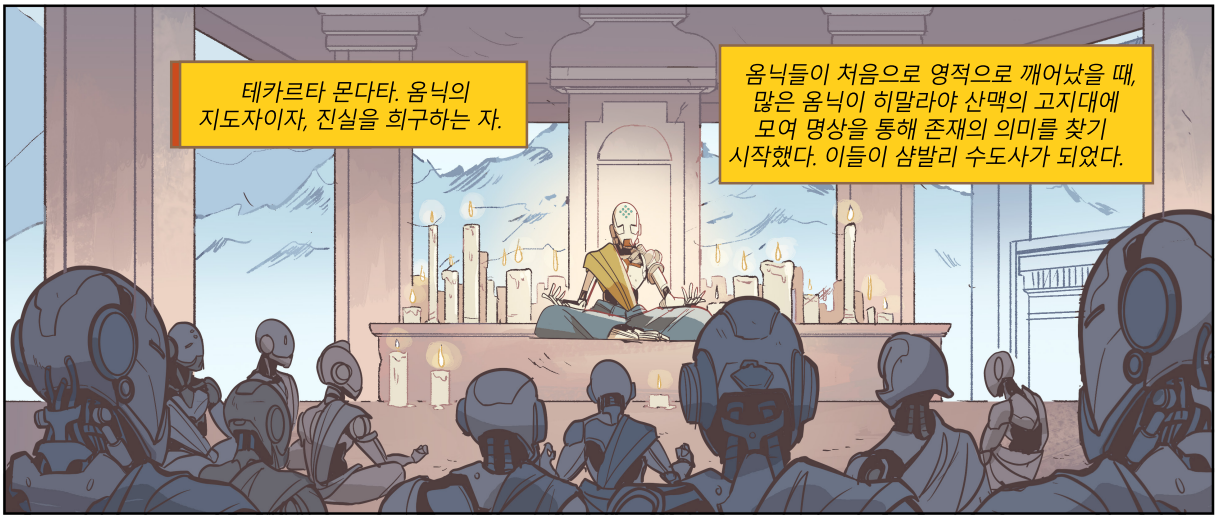
네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 하는 건 좋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네가 너인 거니까. 내가 레나 옥스턴, 일명 트레이서를 사랑하는 이유기도 하고.
나의 매력적인 성격도 빼먹으면 안 되지.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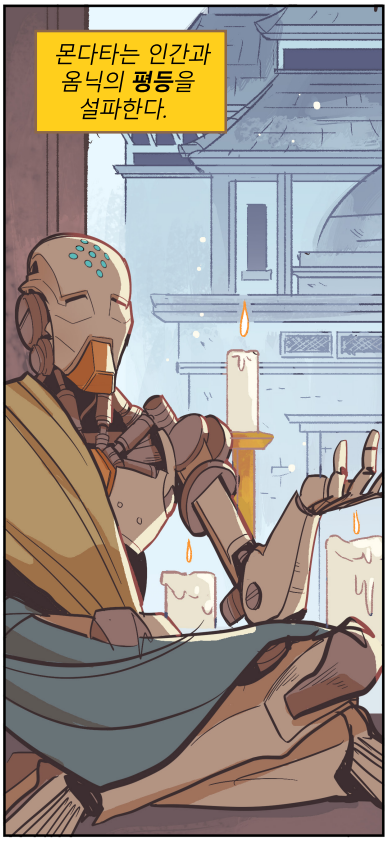
아, 참! 너한테 소포 왔더라. 페이스에이프라는 사람이 보냈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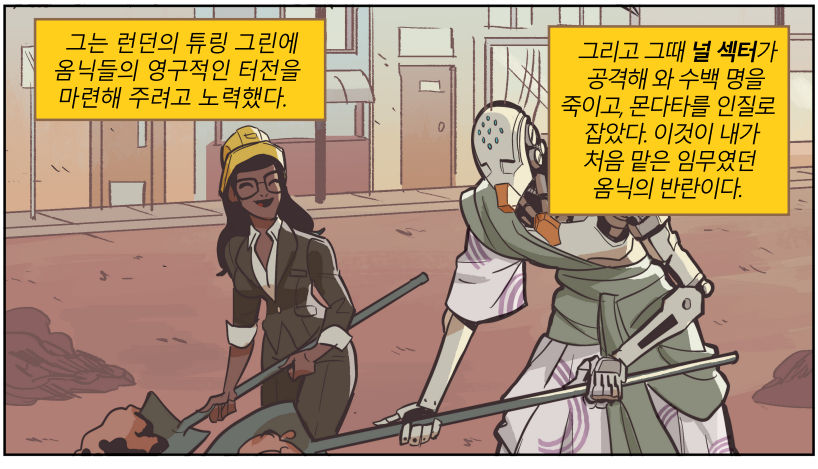
"S. 페이스에이프" ...누구지?
안녕, 윈스턴.
그나마 너라면 그리드를 고칠 방법이 감이 잡힐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겐 부품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안전하게** 확보할 방법을 알아요! 제 친구가-
그 인간이 약속했단 건가?
그 친구가 부품을 구해 주겠다고 했어요.
인간이 오늘 가져온 것을 봐라. 인간의 음악이었지. 또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지?
레나는 **노력하고** 있어요.
지지직
옴닉은 **전체**를 위해 싸운다. 인간은 그저 자기만을 위해 싸우지.
그 말은 **틀려요.**
두고 봐라.
저들은 인간에게서 부품을 훔칠 거야, 이기. 네가 막을 방법은 없어.
연락할 방법은 있어? 레나 옥스턴에게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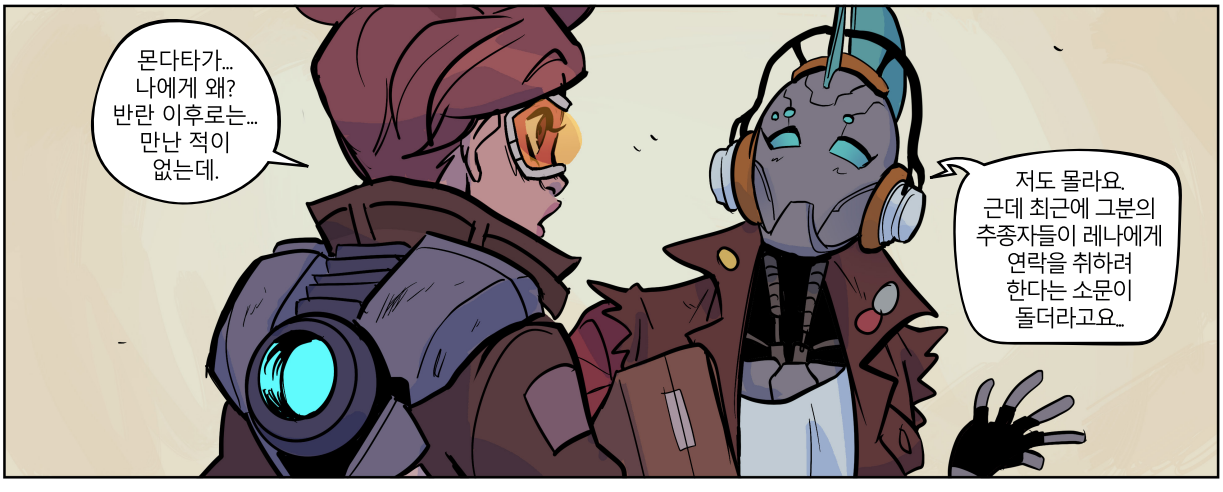
부활절에 달걀 찾듯 부품을 찾아 런던의 지하를 헤매는 나...
레나!
부품을 구하기가 조금만 쉽다면 좋을 텐데.
그래도 레나가 구해다 주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곳의 인간들은 옴닉이 고생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옴닉들이 많거든요.
잘된 게 맞나.
그리드가 어젯밤에 또 오작동했어요. 변압 장치도 바꿔야 해요 그게 없으면 어차피 계속 고장이 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계와 같이 작동시킬 수 있는 변압 장치가 없어요. 최소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요.
그렇구나.
앗! 이거 받아! 조절 장치야!
잘됐네요!
근데 당신은 관심이 있잖아요!
게다가 제가 당신을 찾아 나선 건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몬다타 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거든요.


테카르타 몬다타. 옴닉의 지도자이자, 진실을 희구하는 자.
옴닉들이 처음으로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많은 옴닉이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대에 모여 명상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이들이 삼발리 수도사가 되었다.


몬다타는 인간과 옴닉의 **평등**을 설파한다.


그는 런던의 튜링 그린에 옴닉들의 영구적인 터전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때 **널 섹터**가 공격해 와 수백 명을 죽이고, 몬다타를 인질로 잡았다. 이것이 내가 처음 맡은 임무였던 옴닉의 반란이다.

몬다타가 의회에서 연설하러 런던에 온다는 기사를 에밀리가 읽었다. 그런데 인간과 옴닉들이 모인 곳에서도 연설을 한다고 했다.


몬다타가... 나에게 왜? 반란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최근에 그분의 추종자들이 레나에게 연락을 취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오늘 연설하기 전에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트레이서.
레나 옥스턴이에요. 왕립공군에서 은퇴했고, 오버워치 소속이었죠.
이봐요. 당신이 누군지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그냥 걸어 들어갈 수는-
들여 보내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옥스턴 씨. 트레이서. 와 주셔서 기쁘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약 7년 전...
몬다타와 포로들을 구출하는 건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일 기회였다.
내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버워치에 증명해 보일 기회.

영웅의 책임이라는 것,
그게 언제나 생각과
같지는 않다.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끔은 오히려...

...짐처럼
느껴진다.

제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준비해 준 다과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당신에게... 음식을 내왔어요? 좀 생각이 없네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지요. 우리를 구별하는 사소한 차이 중 하나기도 하고요.

당신이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당신을 기억합니다, 트레이서.
그때 대단히 용감했지요.
인간과 옴닉들은, 지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알아요. 이곳 옴닉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돕겠다고 나서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면하고 싶지도 않아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레나 옥스턴. 앞을 똑바로 보아 주십시오.

인간과 옴닉 사이의 갈등은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전쟁을 계속해 봐야 우리 모두 파멸할 뿐임을, 이제 양측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과 옴닉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TAXI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하지만 모두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우린 모두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험은... 위험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서, 바로 지금 우리는 그보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지금 미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몬다타 님?

네. 그래도 조심하실 거죠?
이 움직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서. 우리는 기계도,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지**이며... **사상**입니다.

몬다타!
와.
북적북적하네.
사랑해요!
레나! 믿어져요?
인간들이 엄청 모였어요!
절대 안 올 줄 알았던
옴닉들도 왔고요!
오,
안녕!
몬다타
님이다! 봐!
PEACE!
인간과... 기계...
눈동자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봅니다... 인간과 옴닉이
나란히 서서...
...서로 공감하며
희망과 꿈을
함께하는 미래.
!

예감이 좋지 않아.
그리고 내 나쁜 예감은...
어디 가는 거지?
만세!
...보통 들어맞지.
레나가 이상하네.
근데, 레나 오버워치였지?
응. 그러니까 저렇게 갑자기 가 버렸다는 건...
PEACE AND UNITY

...다른 곳에 이상이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이런, 이런. 위도우메이커네!
파티 망치는 게 취미야, 자기?

몬다타가 위험하다. 옥상에 저격수! 반복한다, 옥상에 저격수!
확실히 이상해.
이기! 잠깐만!
"헤일로" 대피.
타다다다
뭐지?

트레이서?!
"트레이서!!"

영웅의 책임이 올바른 때에 올바른 곳에 있는 거라면...
...내가 거기 없을 땐...
...어떻게 되는 거지?
안 돼!

돌아가셨다!
몬다타 님이 돌아가셨어!
PEACE AND UNITY
WE ARE ALL ONE IN THE IRIS
PEACE!
ONE IN THE
모두 물러서십시오!
"헤일로"가 사망했다. 반복한다. "헤일로"가 사망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레나는 몬다타 님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아듀, **셰리.**
난 실패했다.
무슨 일이야? 감도 안 오네.
트레이서가...
"트레이서"가 **뭐?**
...점멸해서 총알을 피했어. 그분을 죽인 총알을.
몬다타가 죽었다.
모두 내 잘못이다.
대체 왜?
모르겠어.
다음 편에서 계속

다음 편:

몬다타의 암살 이후 런던의 옴닉들은 슬픔, 분노, 두려움, 절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트레이서가 시간 가속기를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케이스는 지하 세계의 옴닉들을 모읍니다. 그는 몬다타가 주장하던 평화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전쟁의 때가 되었습니다.